

지난해 GDP 세계 10위, 1인당 소득은 G7



사진=타운뉴스DB

지난해 한국 경제가 -1%로 뒷걸음질쳤지만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0위로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소득 수준은 주요 7개국(G7) 반열에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6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이날 집계한 지난해 한국의 실질 GDP는 1,830조5,802억 원이었다. 이를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1,180.10원)을 적용해 환산한 달러 기준 GDP는 1조5,512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의 GDP 규모는 2019년 12위에서 지난해에는 10

위로 올라갔다. 2019년 기준 한국보다 GDP 규모가 컸던 브라질과 러시아의 지난해 역성장폭이 한국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한국의 성장률을 -1.9%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0% 성장으로 IMF의 전망을 뛰어넘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GDP가 10위권에 들어간 것은 2018년 이후 2년 만이다. 한국은 2004~2005년 10위권에 진입했지만 이후 2006~2017년까지 10위권 밖으로 밀렸다가 2018년 반짝 10위권 진입에 성공한 바 있다.

국민의 평균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G7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GNI는 지난 2017년(3만1,734달러) 처음으로 3만 달러 문턱을 넘었다. 이후 2018년 3만3,563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바로 하향 전환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다만 감소세가 다른 나라보다 낮아 1인당 세계 순위는 7위 안에 들면서 G7국가 대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60개월 연속 출생아 감소



사진=타운뉴스DB

월간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겨우 넘기며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인구 자연감소 규모는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출생아 수 감소가 60개월 지속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7일 '뉴스1'은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0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85명으로 전년동월보다 15.3%(-3,642명)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는 1981년 출생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저 규모다. 그동안 출생아 수는 2019년 12월 2만1,228명까지 줄었으나 2만1,000명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생아 수 감소는 2015년 12월 781명 감소 이후 60개월 연속 지속됐다. 출생아 수 감소 흐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11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에 턱걸이하면서 2만 명대 붕괴도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저출산이 심각해진 가운데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인구절벽도 심화됐다. 11월 사망자는 2만5,669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257명) 증가했다.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감소 규모는 5,583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출생아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혼인 건수도 감소세가 지속됐다. 11월 혼인 건수는 1만 8,177건으로 전년동월보다 11.3%(-2,311건) 감소했다. 지난해 3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다. 혼인 건수가 줄면서 출산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작년 10명 중 4명 집 문제로 이동

지난해 인구이동자 수가 5년만 가장 많았다. 10명 중 4명은 '집 문제를 이동 사유로 들었다. 수도권으로 8만8천명의 인구가 순유입됐다.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지난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내 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이동자 수는 773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8.9%, 63만1천명 증가해 인구 이동자 수로는 2015년 775만5천명 이후 가장 많았다.

통계청은 지난해 인구이동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 집 문제를 들었다. 통계청은 "주택 매매가 전년대비 59%,



사진=타운뉴스DB

전월세 거래가 12% 증가하는 등 주택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라고 밝혔다.

773만5천명 중 300만5천명이 내집 마련과 전월세 만기 및 평형 확대·축소 등이집 문제로 이사했다. 이어서 가족 문제로 이사했다는 응답은 23.2%, 직업은 21.2% 순이었다.

지난해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는 8만8천명으로 2006년 11만1천700명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순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기도로 16만8천명이 순유입되었다. 반면 서울은 순유출(-6만5천명)이 가장 많았다.



Since 1978 오랜 경험과 지식으로 확실히 도와드립니다. 남가주 전지역

주택, 아파트, 상가, 매매 및 투자상담

미래의 은퇴를 위한 확실한 투자를 소개합니다.



Douglas Moon
Broker Associate
DRE Lic: 00622281

라하브라 4유닛 년 수입 \$83,580 방2 화2 x 4 1962년생 편리한 교통, Big Patio 100% Occupancy \$1,230,000	애나하임 4유닛 년 수입 \$96,720 방2 화2 x 4 편리한 교통, No Vacancy Garage all unit Ample Parking \$1,500,000	애나하임 4유닛 년 수입 \$67,200 방2 화2 x 1 방2화1 x 3 Garage, 편리한 위치 \$1,350,000	애나하임 4유닛 1963년생 년 수입 \$89,400 방2화2 x 2 방2 화1 x 2 렌트 최적지역 \$1,375,000	플러톤 5유닛 년 수입 \$98,400 방2화1 x 4 방1화1 x 1 대학 근처, 리모델링 주방 100% Occupancy \$1,598,000	오렌지 4유닛 방2 화1 x 3 방2 화2 x 1 1979년생 연인컴 \$87K 좋은 동네 사파링 근처 \$1,280,000	애나하임 6유닛 방2/1 화1 대지 9,148 sq 월 인컴 약 \$8,545 \$1,399,000
코스타메사 3유닛 년 수입 \$63,540 방1화1, 방2화1, 방3화2 비치와 가까운 지역 Good Potential 100% Occupancy \$1,285,000	터스틴 8유닛 년 수입 \$160,200 방1화1 x 2 방2화1 x 4 방3화2 x 2 좋은 위치, 100% Occupancy \$2,595,000	로스알라미토스 6유닛 년 수입 \$151,200 House 방5 화2.5 x 1 방2화1x1, 방2화1x4 집 한채(Cottage) + 아파트 최고 학교, 렌트 선호 지역 교통 편리, 100% Occupancy \$2,565,000	부에나파 7유닛 년 수입 \$165,600 방2화2 x 6 방3화2 x 1 New Kitchen & Bath New Air conditioning 교통중심, 편한 위치 \$2,350,000	산타애나 6유닛 년 수입 \$116,340 방1화1 x 3 방2화1 x 3 Garage, 교통편리 동네 좋음 \$1,825,000	오렌지 2유닛 방2 화1 x 2 년수입 \$43,500 대학 근처 다운타운 가까운 거리 \$749,000	애나하임 2유닛 년수입 \$48,000 방2 화1 x 1 방1 화1 x 1 \$629,000

*그밖에 많은 주택 그리고 좋은 수입을 창출하는 적은 유닛과 아파트가 있습니다.

714.336.1983 dmoon4989@gmail.com